

발자크의 '절대의 탐구'

(La Recherche de l' Absolu)

글 | 이 광 _ 계명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 klee179@kmu.ac.kr



발자크 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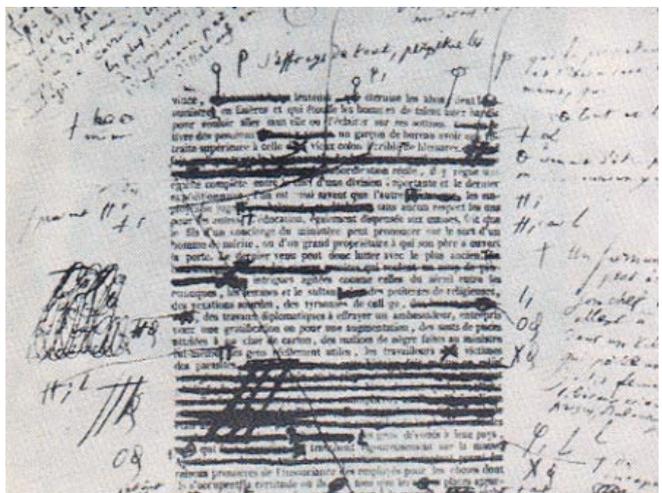
발자크(1799~1850)는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의 말기에 작품 활동을 했던 작가로서 수많은 작품을 통해서 당시의 낭만주의 문학은 물론 후의 사실주의 문학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절대의 탐구'는 발자크가 1832년에 쓰기 시작하여 1834년에 간행한 작품으로 그의 유명한 작품 '인간희곡'의 '철학적 연구' 부문에 속해 있는 소설이다. '절대의 탐구'는 연금술이 마침내 근대화학으로 모습이 변해가는 19세기 초기에 시대의 희생자로서 고뇌하며 죽어가는 한 사람의 화학 마니아의 생애를 놀랍게도 극명하게 묘사했다. 발자크의 치밀하고 정확한 환경묘사와 인물들에 대한 세심한 성격묘사는 짜임새와 박진감을 한층 더해 주고 있다.

19세기 초기 화학 마니아의 일생 담은 소설

19세기 초기 화학 마니아의 일생 담은 소설

주인공 발타르 클라스는 벨기에에 인접한 프랑스 플랑드르 지방의 오랜 도시인 두에 출신이다. 그는 젊었을 때는 파리에서 라부아지에의 제자가 되어 얼마간 화학 연구를 한 적이 있지만, 그 후 고향에 돌아와 결혼하고, 처와 네 명의 자녀와 함께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는 다시 화학에 흥미를 갖기 시작해 지붕 밑 방을 고친 실험실에 온종일 틀어박혀 연구에만 열중했다. 많은 금액의 실험기구와 약품과 기계 및 책, 때로는 다양한 다이아몬드조차 잇달아 구입하였다. 그래서 클라스의 부채는 점점 많아졌고, 클라스 부인의 마음고생은 깊어져만 갔다. 그러나 클라스는 점차로 꿈을 꾸듯이, 때로는 미친 듯이 화학 탐구에 빠져 들어간다. 긴 이야기는 여러 파란곡절을 보이면서 전개된다. 그런데 클라스에게 젊은 시절 화학에 대한 흥미를 되살아나게 한 계기가 된 것은 1809년 어느 날 우연하게 집에 머물렀던 폴란드 장교였다. 이

장교는 클라스가 라부아지에 밑에서 화학을 연구했다는 것을 듣고서, 화학에 대한 그의 의견을 장황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화학은 자연계를 전연 별개의 두 부분, 즉 유기계와 무기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해보면 유기계에서 생기는 모든 물질은 4개의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셋은 기체로 질소·수소·산소이고 다른 하나는 비금속의 고체, 즉 탄소입니다. ... 한편 무기계에는 원소의 수가 53개나 되며, 이 원소의 여러 가지 다른 결합에 의해서 무기계에 속하는 모든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어서 폴란드 장교는 말을 계속한다. 유기계의 물질은 동물·식물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모든 생명현상의 근원인데, 무기계의 물질은 운동도 감각도 성장도 없는 무생물, 암석광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후자를 구성하는 원소의 수가 전자를 구성하는 원소보다 훨씬 많은 것은 분명히 이상하다고 했다. "그러므로 나의 옛 선생님의 의견에 의하면 이들 53종의 원소에는 반드시 하나의 공통된 원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질은 현재는 소멸되어 작용하지 않는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이미 변화되어 버렸지만, 그것은 당연히 인간의 지혜



발자크의 원고 교정지



우표(왼쪽부터 발자크(1799~1850), 베르톨레(1748~1822), 게이-뤼삭(1778~1850), 갈바니(1737~98), 볼타(1745~1827), 베르셀리우스(1779~1848))

에 의해서 다시 부활되어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힘의 활동성이 다시 회복된다면 우리들은 일원적 화학을 갖는 셈이 될 것입니다. 유기계와 무기계는 아마도 네 개의 원소를 기초로 하게 되겠죠. 만일 우리들이 질소를 분해하게 되면 우리들은 세 개의 원소밖에는 갖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이미 고대인의 위대한 3원소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우리들이 부당하게도 조소하고 있는 중세의 연금술사들에...” 폴란드 장교는 다시 자신의 기묘한 실험결과를 인용하면서 논의를 이어 간다. 이렇게 해서 3원소 또는 4원소의 배후에는 다시 공통된 하나의 원질이 있다. 그 비밀을 푸는 열쇠는 양전기와 음전기에 공통된 원질에 있는 것이다. “만일 가치가 있는 실험이라도 하게 되면 죽기 전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긴 논의를 마쳤다. 이 마지막의 한 마디가 클라스의 마음에 불을 붙였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남편으로부터 이 폴란드 장교의 이야기를 들은 클라스 부인은 외쳤다. “우리 집에서 하룻밤 밖에는 머무르지 않았던 그분이, 우리들에

게서 당신의 애정을 빼앗아 버리고, 단 한 구절, 단 한 마디에 의해서 한 가정의 행복을 파괴했다 말입니까? 그날부터 당신은 아버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한 가정의 주인도 아니었어요.” 부인은 폴란드 장교를 노란 눈을 가진 악마라고 매도했다.

소설 속 주인공 사고양식은 전기화학적 2원론

클라스의 아내 조세핀은 남편을 이해하려고 이미 몰래 라부아지에를 비롯하여 베르톨레, 게이-뤼삭, 갈바니, 볼타 등 그 당시의 모든 화학 관련 책을 읽었다. 그래도 남편의 ‘절대’ 이론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자식들을 위한 모성애 사이에서 고민하고, 자기 남편을 빼앗아간 화학과 싸우다가 지쳐서 죽는다. 큰 딸 마그리트는 아버지를 버리지 말고 동생들의 앞날을 부탁한다는 어머니의 간곡한 유언에 충실하면서 허물어져가는 가문의 명예와 파산해버린 재산의 복구를 위해서 노력한다. 그래서 그녀는 주위 사람들과 상의하여 한 세금징수관의 자리를 얻어 아버지를 노르망디 지방으로 보낸다. 갖은 고초와 노력 끝에 모든 것을 거의 전과 같이 회복시켜 놓고 부친을 집으로 모셔온 후, 평소 다정하고 정직하게 협조해준 소리스 청년과 결혼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절대 발견에 대한 집념은 아주 사라진 것이 아니고 잠자고 있었을 뿐이었다. 큰 딸 내외가 상속관계의 일로 스페인 여행을 떠나자 아버지의 열정에는 다시 불이 붙어서 그는 실험에 몰두한다. 딸이 급한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폐인의 상태에 있던 아버지는 가족들의 극진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나는 발견했다”라고 외치며 숨을 거둔다.

클라스는 모든 물질의 배후에 있는 유일한 원질을 ‘절대’라고 이름 지었다. 도대체 이 절대를 발견하기 위해서 클라스는 어떤 실험을 했을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문호 발자크는 거의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클라스의 사고 양식은 당시의 첨단적인 물질관, 요컨대 스웨덴의 화학자 베르셀리우스(1779~1848)의 전기화학적 2원론이었던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화학변화가 전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현상이라는 것은 18세기 말 급속하게 밝혀졌다. 전기분해에 대한 연구에서 물질의 원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㉓



라부아지에(1743~94) 부부